타이틀	08. 이루리, 상자를 주문하다
배 경	H기프트
등장인물	이루리: 20대 여 한대리: 기획팀 선배

시놉시스

공예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하는 이루리는 상품의 배송을 위한 박스를 제작주문하기 위해 비슷한 상자를 찾아 해체한 후 전 개도를 따라 만들어 제작주문을 요청한다.

그런데 박스 제작 사이트 주문안내에 보니 사이즈는 mm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라고 되어 있다. cm를 다시 바꾸는 이루리

대형과 소형으로 분류되는 상품으로 인해 주문한 사이즈 보다 더 큰 상자도 주문해야 하는 루리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2배 사이즈라고 적었다가 다시 제대로 상품을 측정한 후 2배 사이즈의 박스를 전개도에 표시해 제작을 의뢰한다.

그런데 뒤늦게 소포 규격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루리. 규격이 넘어가면 우편비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택배박스 규격을 확인해 넘지 않았는지 체크한다.

루리는 사이트의 비용책정 기준을 보고 소요비용 총액을 계산한다.

대 본

#1 타이틀 : 이루리, 상자를 주문하다.

#2 작업실 또는 사무실

선물용 예쁜 양초(또는 수공예 악세사리)를 보고 있는 이루리와 그런 이루리를 뿌듯하게 보고 있는 한팀장

- 루리 정말 너무 예뻐요!
- 한 그죠? 나도 보자마자 이거다, 했다니까요.
- 루리 이제 이걸로 상품 기획하실 거에요?
- 한 이건 제품이 너무 예뻐서 포장만 잘 해서 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생각해 봤는데 포장은 초콜릿박스 컨셉으로 가면 어떨까요?
- 루리 초콜릿박스요?
- 한 (핸드폰 보여주며) 이런 컨셉인거죠. 작고 예쁜 정육면체 박스가 한 개 짜리, 네 개 짜리,, 아홉 짜리 이렇게 포장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어때요?

잔뜩 기대에 차서 루리 바라보는 한대리, 화면 멈추고 루리 속생각

- 루리 초콜릿박스? 한 개, 네 개, 아홉 개면 이 정사각형 작은 박스가 점점 커지는 건가 보네.
- 루리 어머~ 반지 상자같아요. 이런 게 점점 커지는 거에요? 너무 귀엽겠어요!
- 한 (즐거워서) 정말요? 이루리씨는 어쩜 나랑 생각이 똑같네! 그럼 루리씨가 포장상자 좀 주문해 주실래요?
- 루리 아, 저번에 상자 제작 주문했던 그 업체요?
- 한 네. 저번에 저랑 같이 해봤죠? 사이트 들어가서 먼저 박스 샘플을 고르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정해서 최종적으로 전개도 확인해서 제작 주문했던 곳이요.
- 루리 네, 기억나요.
- 한 (명심하라는 듯) 봤죠? 반지상자처럼 정육면체로 1개짜리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게 4개가 들어갈 사이즈, 9개가 들어갈 사이즈 이렇게 만들면 되요.
- 루리 네.
- 한 최종적으로 개수랑 칼라랑 확인하고 제가 주문 클릭할 테니 다 되면 견적저장만 해놓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 루리 네.



#3 컴퓨터 자리

루리가 당황한 얼굴로 모니터를 보고 있다. 모니터에는 정육면체 박스의 여러 전개도가 나와 있다.

루리 어머나… 정육면체 박스의 전개도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 바닥이나 뚜껑이 조금씩 다르네… (필요한 정육면체 박스 이미지 한쪽에 나오고) 이 초콜릿상자 같은 느낌이라면 뚜껑이 위로만 열리는 디자인이어야 하는데… (다른 한 쪽에 전개도가 나오면서 하나씩 잘못된 면이 표시되고 사라진다.) 이거는 뚜껑이 없고, 이거는 뚜껑이 위 아래에 두 개나 있고, 이거는 손잡이가 있고… 아, 이거다!

루리가 전개도를 선택하자 모니터에 주문 페이지가 뜬다. 선택한 전개도의 입체모습이 보여지고 사이즈를 적게 되어 있다. 한 대리가 두고 간 제품의 사이즈를 재는 이루리

루리 (자로 가로, 세로, 높이를 재며) 5센티, 5센티, 5센티. 그러면 박스는 (주문페이지 뜬다.) 가로, 세로, 높이 5센티로 주문하면… 당연히 안되겠지. 꽉 껴서 넣기도 빼기도 힘들테니… 여유는 얼마나 있어야 할까? 예전에 한대리님이랑 했던 걸 봐야겠다.

루리가 일어나 구석에서 예전에 썼던 박스와 상품을 가지고 와서 제품 사이즈와 상자 사이즈를 재본다.

루리 (자로 제품과 상자 사이의 간격을 재며) 양쪽에 약 2미리미터 정도의 공간이 있구나. 그럼 사방에 2미리미터, 위아 래 2미리미터의 공간을 주면 되겠네. 그러면…

루리가 대충 도식을 그리다가 깨닫는다.

루리 가로, 세로는 5.4… 높이는 5.2면 되겠네… 하지만 그럼 정육면체가 아니니까 가로, 세로, 높이 5.4로 주문하자.

루리 에? 단위가 밀리미터네? 그럼 곱하기10 해서 54, 54, 54… 이러면 밀리미터지.

숫자를 넣고 나서 외측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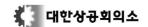
루리 외측사이즈? 아~ 상자 두께도 필요하구나! 상자 두께는 선택을 해야 하네? 3키로 이하 제품이니까 1.5밀리미터로 하면 되겠다.

이루리가 다시 한대리가 준 샘플 초콜릿상자 이미지 본다.

루리 두 번째 상자는 이 1개 짜리 상자가 4개 들어가는 박스… (종이 꺼내서 그림 그려가며 추측하는) 두 배면 10.8 그런데 여기에도 여유가 있어야 할테니까. 벽과의 사이 2mm를 떼고 서로 맞붙는 공간 1mm를 떼면… 10.8+0.2+0.2+0.1=11.3, 내측길이 가로, 세로는 11.3이고 높이는 5.4인 박스를 주문하겠습니다.

4개 짜리 상자가 보여지며 치수가 들어가 주문서가 만들어 진다. 틈의 간격은 말풍선으로 확대되어 정확히 여분 간격 0.1cm 와 0.2cm를 보여준다.(위의 이미지를 참조로 하여 디자인)

루리 다음 세 번째 상자, 9개가 들어가는 상자라면… (다시 그림에 3×3 그림 그리는) 한 줄에 세 개씩이니까 곱하기 3 해서 16.2센티미터. 16.2+0.2+0.2+0.1+0.1=16.8, 내측길이 가로 세로 16.8이고 높이 5.4인 박스가 필요하지요. 그때 한대리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다.





한 (전화 너머에서) 루리씨, 견적 넣어 놨어요?

루리 (저장하기 급히 클릭하며 당당하게) 네. 넣어놨습니다.

한 아, 잘됐네요. 지금 팀장님이랑 얘기 중인데 포장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요. 그 사이트 단가표에서 저희가 필요한 상자 삼 종과 비슷한 사이즈를 찾아서 한 세트씩 주문할 때 모두 얼마가 들지 계산해 주세요.

눈 앞에 쭈욱 사이즈별 가격표가 길게 뜨는 걸 보고 있는 루리 얼굴에서 화면 멈추고 속생각 루리 여기서 비슷한 사이즈를 세 개 찾아서 다 더하라는 건가요?

한 얼른 찾아서 보내주세요. 아, 보낼 때 한 세트당 박스가 몇 개인지도 꼭 넣어주세요! 사이즈에 따라서 세트별 박스 개수가 다르거든요.

루리 네. (전화 끊고 한숨 후~) 최대한 오차가 적은 걸 찾아봐야겠구나.

종이에 적어가면서 오차가 적은 상품 찾는 이루리의 모습

루리 69호, 75호, 103호… 찾았다.

컴퓨터 화면에 계산기 띄워놓고 노트패드에 식 적어가며 계산하는 이루리 잠시 후, 한대리한테 전화하는 이루리

루리 대리님, 한 세트씩 주문할 때 총가격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 (핸드폰 확인하며) 아~ 왔네요. 고마워요! 그나저나 루리씨 진짜 빠르네요! 놀랐어요~

루리 (전화 끊고 뿌듯하게) 사실은 저도 놀랐어요, 대리님.

뿌듯하게 웃으며 다른 일 시작하는 이루리